□ 충주 양성 육계단지

육계직립식 케이지 첫 등장

□ 취재/김용화 부장

우리나라 육계산업은 '97년 7월 이후 완전 수입개방에 대비해 강한 도전과 대비책을 세우며 나름대로 생산비를 절감하여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할 입장에 있다.

그간 수입개방이 되면 곧 지리멸렬할 것으로 속단해 왔으나 지난번 수입권 공매에서 나타난 수입가를 보면서 생산비만 구석구석 뒤져 인하를 시킨다면 그런대로 해볼만한 일로 받아들여서인지 육계인들의 사고방식이 어느정도 세계화에 접근하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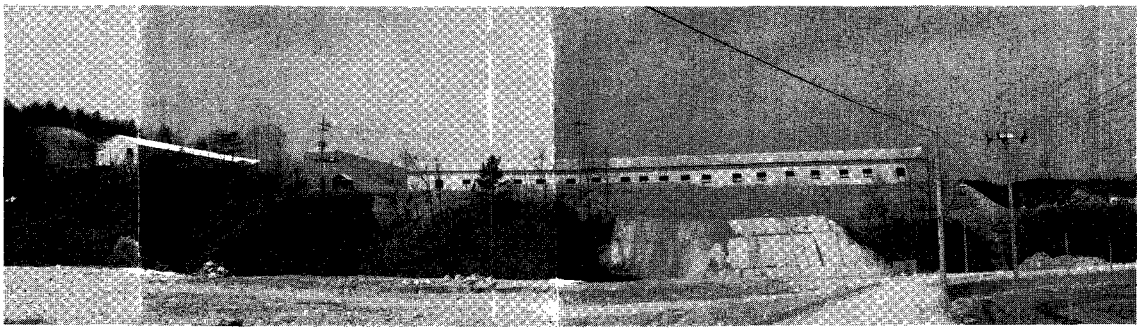
지난 '94년 여름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 현재까지 예측 불허의 상황을 연출해 냈으나 이제는 서서히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 가고 있어 개방화 시대에 육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원가절감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는 일인 것 같다.

육계산업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충북 충주시 앙성면에 위치한 앙성 양계단지(대표 백승진)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이번에 무진통상(대표 최인)을 통해 독일에서 수입된 육계용 직립식 케이지를 설치하여 4월말에 입추를 목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앙성 양계단지는 같은 도내 삼성양계단지에 이어 육계분야에서는 두번째로 농림수산부의 축산단지조성사업 자금을 지난 '94년에 지원받아 이 기금 12억과 자체자금 4억여원 총 16억을 투자하여 30만수 규모로 농장 건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직립식 케이지를 설치하게 된 동기는 인력난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없는 육계산업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면서도 축분처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자동화 시설을 생각하게 되다보니 산란계에서 주로 채택하여 운영되고 있는 직립식 케이지를 선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앙성양계단지는 백승진, 이원홍, 손광호, 김호연, 임순범씨 등 5명이 주축이 되어 양계단지를 추진하여 왔다. 부지 8천여평에 건평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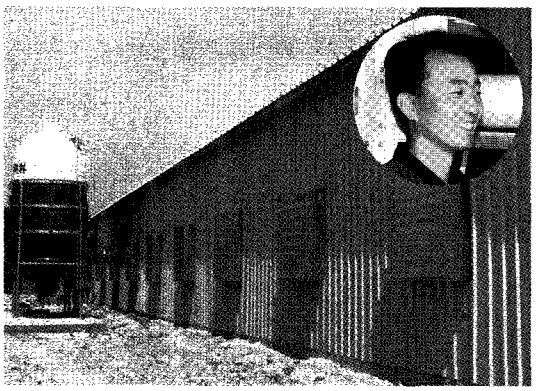


▲ 향후 공사가 완료되면 30만수 수준의 양계단지가 될 앙성육계단지 전경

950평(계사 310평 1동, 320평 2동)인데 3계동 중 1계동만 우선 직립식 케이지를 설치하였고 곧 다음 동도 공사를 할 예정에 있다.

1차 사업이 완료되면 15만수가 입추되는데 3계동을 더 확장하여 30만수로 양계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310평 계사는 길이 85m, 넓이 12m로 완전 무창계사로 건축을 하였는데 건축비만 평당 25만원이 들었다. 계사내부나 틈새는 발포제로 완벽하게 처리하여 보온을 잘되게 하였으며, 외기 바람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 환기에 만전을 기하였다.



▲직립식 케이지가 설치된 무창계사
(원내는 백승진 대표)

자동화 시설비는 수당 대략 7,350원이 소요되었는데 4단 5열로 약 5만여수가 입추되어 평당 158수가 약간 넘는 수준이다(1칸 60수 수용).

직립식 케이지는 계분이 벨트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깔짚비가 들지 않고, 무창계사이기 때문에 연료비가 절감되는데 전기료를 제외하고도 상당한 액수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어 생산비 인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육후 바닥을 들어 올리면 닭이 벨트 위로 떨어져 콘베어를 타고 출하차에 실리게 되어 있어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으며 계분도 발효하면 현재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잇점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앙성양계단지에 설치된 직립식 케이지는 많은 육계인들이 궁금해 하는 바닥 철망으로 인해 상처를 입어 닭고기의 질이 손상된다는 단점을 보완키 위해 철망 대신 특수 합성수지품으로 대체하여 걱정을 해소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칸당 닢플은 4개씩 설치되어 있으며 전등은 칸마다 15W 짜리가 달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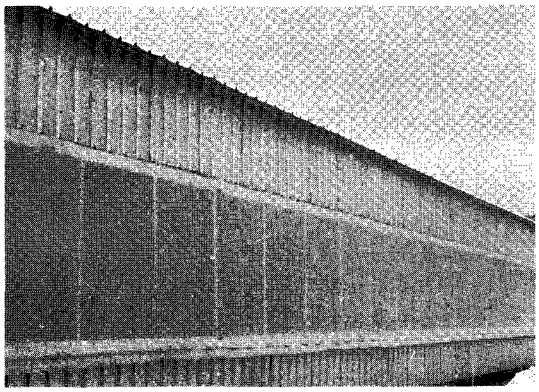
▲국내에서 첫선을 보인 육계 4단 직립식 케이지

이밖에 약제를 투여할 수 있는 메디케이터 라인이 별도로 있어 음수백신 등 각종 질병예방을 위한 방역시설도 갖추고 있는데 5만여수를 사육하는데 1인이 관리할 수 있도록 자동화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

양계단지를 조성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지역 주민을 설득시키는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다음은 산을 깎아 계사를 지어야 했기 때문에 길을 내고 산을 밀어 내는데 엄청난 자금이 투입되었고 옹벽을 치느라 더욱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생산성 향상을 실현하기 위해 일이 하나하나 마무리가 되면서 나름대로 기대감도 갖게 되었고 의욕도 생겼지만 국내에서는 처음



▲쿨링패드가 설치된 무창계사 남쪽 벽면과 지붕틈새까지 발포제로 마무리 하였다.

직립식 케이지를 도입하여 운영해야 하는 기술적인 면과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걱정이 앞선다고 그간의 고충을 털어 놓는 회원도 있었다.

이제는 계사가 완성되고 그곳에 직립식 케이지까지 설치가 되어 곧 병아리가 입추되어 어떻게 효율적으로 단지를 운영해 나가느냐에 모든 회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닭고기가 수입이 시작되면서 육계인중에는 더러 남은 기간까지 좋은 기회만 노려 한탕하려는 생각에 농장관리가 허술해져 생산성은 국제 수준에서 바닥권을 맴돌고 있는게 사실이지만 앙성양계단지를 가꾸어 가는 백승진씨외 4명의 회원들은 암흑 속에서 금맥을 찾는 광부의 심정으로 일관해 닭고기가 전면 수입이 개방되어도 경쟁력을 키워 대응해 나가려는 굳은 의지를 가진 육계인들도 있어 한국 육계산업의 무한한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입추후 출하 성적이 양호하여 한국 육계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표준모델로 재차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면서 취재를 마쳤다. 양계